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6)

미사와 섬유의 사례 - OE 방적의 원사 적극 개발하여, 부직포 겸영

오사카에 있는 중견 면방인 미사와(三澤) 섬유는 주변의 방적 공장들이 연달아 폐업하는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방적으로서의 경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2003년에 폐업한 아트 케미컬(Art Chemical)의 부직포 설비와 함께 판매 영역도 인수하여 2003년 11월부터 생산ㆍ판매를 시작하였다. 미사와 섬유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적만으로는 장래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근 신규 사업 분야로 급부상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부직포 사업을 겸영하고자 이 생산 설비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며, 아트 케미컬이 폐업함에 따라 이 사업을 이어 받기로 하였다.

이 사업을 접수하는 데 소요된 투자액은 1억 2천만엔이었고, 생산 설비는 혼면기, 카드기, 본딩(bonding), 건조, 권취까지 일식이 들어 있으며, 공장 건물은 작업 장갑용 혼방사를 생산하고 있던 공장 하나를 부직포 생산에 알맞게 개조하였다. 설비는 니들 펀치, 스프레이식 케미컬 본드, 서멀 본드 등의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량은 1㎡에 50~500g까지 가능하며, 폴리에스터와 레이온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면 혼방도 시작하였다.

금년에 새로 면 100%의 니들 펀치 부직포를 개발하였다. 표백 면을 사용하여 레이온 단섬유 혼방도 생산이 가능하며, 가격은 1㎡에 300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의료 자재나 위생 재료 외에도 생분해성을 살려 농업용 자재 등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험 생산 단계의 것이 많으며, 부직

포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방적 분야에서도 OE 정방기로 차별화된 원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새 원면으로 뽑은 에코 크레인 면사 외에도 같은 타입의 혼방사도 판매하여, 매트, 작업용 장갑, 커텐 소재용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또한 중고 카드기를 구입하여 시방 전용 설비로 사용하고 있다.

제직 업자에게도 각종 시제품을 제안하고 있으며, 협동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 새로 개발된 소재들이 팔리는 상품으로 되려면 좀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사와는 이와 같은 전진하려는 자세로 고객층을 넓혀나가고 있다.♣